

성폭력 사건 특징에 따른 폭력 빈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¹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건강의학교실,²
광주 원스톱 서비스 센터³

박정인¹ · 추일한^{1,2} · 김승곤^{1,2} · 박상학^{1,2} · 박운영¹ · 황경화³ · 김상훈^{1,2}

Violence Frequency by Sexual Assault Characteristics

Jung In Park, MD¹, Il Han Choo, MD, PhD^{1,2}, Seung Gon Kim, MD, PhD^{1,2},
Sang Hag Park, MD, PhD^{1,2}, Woon Yeong Park, MD¹,
Gyoung Hwa Hwang³ and Sang Hoon Kim, MD, PhD^{1,2}

¹Department of Psychiatry, Chosun University Hospital, Gwangju, Korea

²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³Gwangju One-Stop Service Center, Gwangju, Korea

Objectives Sexual assaults are increasing in the world. They are frequently associated with violence of verbal or physical force and threa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requency of violence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Methods Eighty two female sexual assault victims were referred to the psychiatric clinic from Gwangju One-Stop Service Center between Sep. 4, 2006 and Dec. 31, 2012. We compared the frequency of violence, including verbal or physical force and threat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 sexual assault type ; relationship with perpetrator ; time lag to visit one-stop center ; assault loc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58.5% (n=48) of subjects had experienced violence before the sexual assaults. Compared to rape (50.9%), indecent (76.0%) showed more frequent violence ; and stranger assailant (81.8%) showed greater frequency of violence than acquaintance (50.0%). Victims who visited the One-stop center within 24 hours (76.7%) had greater exposure to violence than those who visited after 24 hours (48.1%). Regarding assault location, violence frequency was higher in other locations (65.7%) than in accommodations (26.7%).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frequency of violence before sexual assaults could be influenced by their characteristic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13;52:360-364

KEY WORDS Characteristics sexual assault · Frequency of violence.

Received July 1, 2013
Revised August 12, 2013
Accepted August 20, 2013

Address for correspondence

Sang Hoon Kim,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
Chosun University Hospital,
365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717, Korea
Tel +82-62-220-3105
Fax +82-62-225-3659
E-mail shckim@chosun.ac.kr

서 론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정의한 성폭력은 강요에 의한 성행위와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발언이나 접근, 성적 거래와 행위의 시도 등을 포함한다.¹⁾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여성의 약 18%가 일생 동안 최소 한 번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다.²⁾ 2010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 조사에서 1년간 성폭력 피해는 980,694건이었고, 평생 성폭력 피해율은 19.6%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³⁾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영향 또한 크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00년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와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 의료와 법률을 포함하는 통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2001년 경찰병원 내 긴급지원센터가 설치되었

고, 2005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통합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여성 · 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상담, 수사 · 법률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로 현재 대학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에 2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전문 상담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이, 성폭력 유형, 피해 장소, 가해자의 면식 여부 등의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⁴⁻⁷⁾ 이들 중 두 연구는 약 20%의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 손상이 동반된다고 보고하였다.^{5,7)} 국외 연구의 경우 성폭력 이후 72시간 전에 응급실에 내원하는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신체 손상이 4배 많다고 보고하였다.⁸⁾ 가해자의 면식 여부, 피해자의 나이, 인종, 음주 여부에 따라 신체 폭력의 빈도가 다

르다는 연구도 있었다.⁹⁾ 다른 연구들은 위협이 있을 경우 신체 손상이 더 자주 일어나고,¹⁰⁾ 위협과 신체 폭력을 모두 포함한 폭력의 빈도는 약 73%라고 보고하였다.¹¹⁾

하지만 성폭력의 유형, 장소, 가해자의 면식 여부 등 성폭력 사건 특징에 따른 언어, 신체 및 위협 등을 포함하는 폭력의 빈도를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특징에 따른 폭력의 빈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 법

대 상

2006년 9월 4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 성폭력을 당한 후 조선대학교병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여성 8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병원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방 법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하여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동거 형태를 확인하였다. 성폭력 사건 특징과 관련하여 피해 유형, 면식 여부, 피해 장소, 성폭력 피해 후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까지 걸린 시간, 피해자가 성폭력 이전에 가해자에 의한 성행위 이외의 폭력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해 유형은 성기 삽입이 있는 성폭력을 강간, 그 외의 성폭력은 성추행으로 정의하였다. 면식 여부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지인 경우를 포함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성폭력 이전에 한 번 이상 본 적이 있으면 면식범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본 적이 있더라도 기억하지 못 할 경우 비면식범으로 정의하였다. 한국의 성 문화 특성상 성행위를 위해 호텔, 모텔, 여관 등의 숙박시설을 단기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숙박시설과 기타 장소로 구분하였다. 기타 장소에는 피해자의 집, 가해자의 집, 차 안, 실외, 공공 장소(직장, 학교) 등이 포함되었다. 폭력 여부는 성폭력 전에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힘을 가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위협을 한 경우 등을 폭력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통계분석

나이,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동거 형태 등 사회 인구학적 분포를 확인하였다. 성폭력 사건 특징과 관련하여 피해

유형, 면식 여부, 피해 장소, 성폭력 피해 후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까지 소요된 시간 등 성폭력 사건 특징에 따른 폭력 유무의 빈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 과

사회 인구학적 특징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24.8세로, 최소 연령은 12세, 최고 연령은 74세였다. 교육정도는 평균 10.8년으로 최소 학력은 무학, 최고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66명(80.5%), 기혼이 11명(13.4%), 이혼이 5명(6.1%)이었다. 직업이 있는 대상자가 27명(19.5%), 학생이 39명(47.6%), 무직이 16명(19.5%)이었다. 동거 형태는 혼자 사는 대상자가 23명(28%),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대상자가 59명(72%)이었다(표 1).

성폭력 이전 가해자에 의한 폭력 양상

전체 대상자 82명 중 성폭력 이전에 폭력에 노출된 피해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exual assault victims

	Numbers (n=82)	%
Sex		
Female	82	100.0
Age, yr		
10-19	32	39.0
20-39	39†	47.6
>39	11	13.6
Education,* yr		
0-6	7	9.2
7-9	27	35.5
10-12	17	22.4
13-16	25	32.9
Married status		
Married	11	13.4
Unmarried	66	80.5
Divorced	5	6.1
Occupation		
Employed	27	32.9
Unemployed	16	19.5
Student	39	47.6
Living situation		
Living alone	22	28.0
Living with others	60	72.0

* : 6 victims data are missing, † : 1 elementary school student, 16 middle school students, 11 high school students, 11 university students

자는 48명(58.5%)이었고, 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피해자는 34명(41.5%)이었다.

성폭력의 유형에서 성추행의 경우 25건 중 19건(76.0%)이 폭력이 있었고, 강간의 경우 57건 중 29건(50.9%)이 폭력이 있었다($p=0.03$). 가해자의 면식 여부에서 비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은 22건 중 폭력에 노출된 경우는 18건(81.8%)이고, 면식범에 의한 성폭력은 60건 중 30건(50.0%)이 폭력이 있었다($p=0.01$). 성폭력 피해 후 원스톱 지원센터 방문까지 걸린 시간에서, 24시간 이내 방문한 피해자 30명 중 23명(76.7%)이 폭력에 노출되었고, 24시간 이후 방문한 피해자 52명 중

25명(48.1%)이 폭력에 노출되었다($p<0.01$). 성폭력 발생 장소는 숙박시설이 15건, 기타 장소가 67건으로 그 중 각각 4건(26.7%)과 44건(65.7%)에서 폭력이 있었다($p<0.01$)(표 2, 그림 1).

고 찰

본 연구에서 성폭력 유형 중 강간에 비해 성추행이, 면식범에 비해 비면식범이 폭력의 빈도가 높았다. 또한, 숙박시설이 아닌 기타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 후

Table 2. Factors associated with violence before the sexual assaults

Variables	Violence (n=48)	Non-violence (n=34)	Total (n=82)
Type of sexual assault*			
Indecent	19 (76.0)	6 (24.0)	25 (100)
Rape	29 (50.9)	28 (49.1)	57 (100)
Relationship with perpetrators*			
Strangers	18 (81.8)	4 (18.2)	22 (100)
Acquaintance	30 (50.0)	30 (50.0)	60 (100)
Time lag to visit One-Stop center*			
Within 24 hrs	23 (76.7)	7 (23.3)	30 (100)
More than 24 hrs	25 (48.1)	27 (51.9)	52 (100)
Place of sexual assaults*			
Accommodations	4 (26.7)	11 (73.3)	15 (100)
Others	44 (65.7)	23 (34.3)	67 (100)

Values are given as number (percenta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 $p<0.05$ by chi-square test of sexual assault characteristics by viol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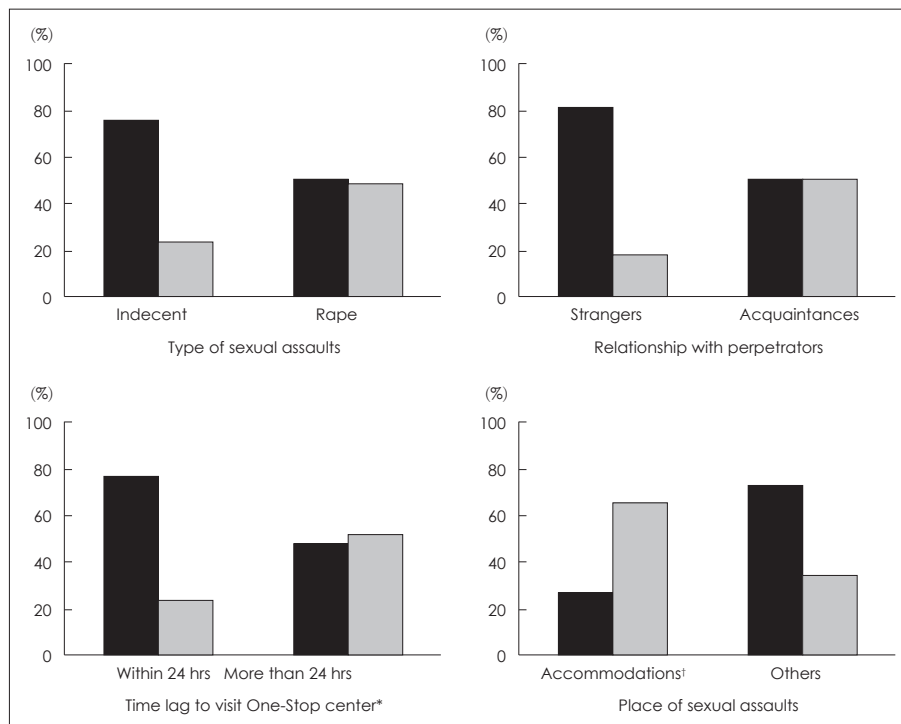


Fig. 1. Bar graphs show frequency of violence (black) and non-violence (light gray) by sexual assaults characteristics. *: One-Stop center is the institution that provides medical, counselling and legal service for violence victims, †: Accommodations are the places for someone to stay temporarily that include hotels, motels, inns.

24시간 안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가 폭력에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강간보다 성추행의 경우 폭력이 더 흔히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2002년 영국의 범죄 예방 및 안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인 Home office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의하면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폭력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다.¹²⁾ 또한, 강간 피해자들의 37%와 성추행의 17%가 신체 손상을 받았고, 언어 위협의 경우 강간의 66%, 성추행의 50% 피해자가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강간 피해자들의 50.9%, 성추행의 76%가 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영국의 보고서는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45%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는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없었고 성폭력에서 폭력의 내용을 피해자의 자가 보고로 평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Abbey 등¹³⁾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신체 접촉 강요(forced contact), 성추행(sexual coercion), 강간(attempted/completed rape)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폭력의 형태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강간 피해자들은 신체 폭력 빈도가 높았고, 성추행 피해자들은 언어 위협 빈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면식범이 면식범보다 폭력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이전 연구들도 비면식범이 면식범보다 폭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9,10,14,15)} Rickert와 Wiemann¹⁶⁾은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과음을 할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밀감 표현을 성적 허용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면식범에 비해 면식범의 폭력의 빈도가 낮은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다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세분하여 배우자, 비면식범, 배우자 이외 면식범 순서로 폭력이 흔하였다고 보고하였다.⁹⁾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고,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80.5% (66명)가 미혼이었다. 그러나 2009년 부부 강간죄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례 이후, 이에 대한 법률 제도 보안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문 시간과 관련하여 성폭력 후 원스톱 지원센터에 24시간 이내 방문한 피해자는 24시간 이후 방문한 피해자보다 폭력이 더 많았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Sugar 등¹⁵⁾은 사건 24시간 이내 응급실에 방문한 피해자는 24시간 이후 방문한 피해자들보다 신체 손상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고, Grossin 등⁸⁾은 성폭력 발생 후 72시간 이전에 응급실에 내원한 군이 그 이후 내원한 군에 비해 신체 손상 및 위협과 폭력의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들은

성폭력에서 폭력이 동반되었을 때 피해자가 응급실이나 의료 및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센터에 더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함을 제시한다.

성폭력 사건 장소와 관련하여 성폭력의 폭력 빈도는 숙박업소가 기타 장소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 연구에서 성폭력 장소와 폭력 빈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Ingemann-Hansen과 Brink¹⁷⁾은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성폭력보다 폭력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문화를 반영하여 성폭력 피해 장소를 숙박업소와 숙박업소가 아닌 기타 장소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국내에서 숙박업소의 객실은 1990년대부터 숙박 이외에 성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¹⁸⁾ 하지만 이러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관련 폭력의 빈도에 관한 연구는 시행된 적이 없었다. Muehlenhard¹⁹⁾와 Adams-Curtis와 Forves²⁰⁾은 데이트 장소로 여성이 남성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하였을 때 남성은 여성이 성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여긴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에서 성행위를 위한 숙박업소 이용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숙박업소 이용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성행위에 관한 암묵적 또는 실질적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폭력의 빈도가 낮은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전 국내 연구가 성폭력 사건 특성에 관한 분포를 주로 조사한 것에 반해 그 사건 특성에 따른 폭력의 빈도를 본 것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한국 성문화를 고려하여 숙박시설과 기타 장소에서 일어난 성폭력에서 폭력의 빈도 차이를 비교한 특이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과 폭력의 유무를 피해자의 주관적 보고에 의존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58.5%가 성폭력 전 언어적 또는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성폭력의 유형, 가해자의 면식 여부, 피해 장소 등에 따라 폭력의 빈도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성폭력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토대로 성폭력 이전 폭력 유무에 따른 정신과적 증상의 발병이나 심각도 차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의학과적 조기 개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 단어 : 성폭력 사건의 특징 · 폭력의 빈도.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rom Chosun University Hospital 2011.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have no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REFERENCES

- 1) World Health Organization. Mental Health Aspects of Women's Reproductive Health : a global review of the literature.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ss;2009.
- 2) Black MC, Basile KC, Breiding MJ, Smith SG, Walters ML, Merrick MT, et al.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0 summary Report.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1.
- 3) Kosis.kr [homepage on the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Available from: <http://www.kosis.kr>.
- 4) Song SH, Kim SY, Chung YK, Shin YM. A study of sexual assault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based on data from a One-Stop Service Center. *J Kor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8;19:162-167.
- 5) Hwang KR, Han KY, Shin MS, Kim JH, Shin JJ, Song KJ, et al. A study of sexual assault: based on data from Boramae One-stop Service Center. *Journal of Women's Medicine* 2010;3:96-101.
- 6) Kim S.K, Lee MY, Choi SJ, Ahn TG, Seo JA, Jeong HY. Analysis of sexual assault victims. *Korean J Obstet Gynecol* 2011;54:37-42.
- 7) Kim SK, Park YK, Kang YD. Analysis of sexual assault victim: based on data from a one-stop service center. *Korean J Obstet Gynecol* 2012; 55:736-744.
- 8) Grossin C, Sibille I, Grandmaison GL, Banasr A, Brion F, Durigon M. Analysis of 418 cases of sexual assault. *Forensic Sci Int* 2003;131: 125-130.
- 9) Moller AS, Backstrom T, Sondergaard HP, Helstrom L. Patterns of injury and reported violence depending on relationship to assailant in female swedish sexual assault victims. *J Interpers Violence* 2012;27: 3131-3148.
- 10) Aveno J, Mills TJ, Mills LD. Sexual assault victim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nalysis by demographic and event characteristics. *J Emerg Med* 2009;37:328-334.
- 11) Ingemann-Hansen O, Sabroe S, Brink O, Mpsych MK, Charles AV. Characteristics of victims and assaults of sexual violence: improving inquiries and prevention. *Journal of Forensic and Legal Medicine* 2009;16:182-188.
- 12) Myhill A, Allen J. Rape and sexual assault of women: the extent and nature of the problem.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2002.
- 13) Abbey A, McAuslan P, Zawacki T, Clinton AM, Buck PO. Attitudinal, experiential, and situational predictors of sexual assault perpetration. *J Interpers Violence* 2001;16:784-807.
- 14) Jones JS, Wynn BN, Kroeze B, Dunnuck C, Rossman L. Comparison of sexual assaults by strangers versus known assailants in a community-based population. *Am J Emerg Med* 2004;22:454-459.
- 15) Sugar NF, Fine DN, Eckert LO. Physical injury after sexual assault: findings of a large case series. *Am J Obstet Gynecol* 2004;190:71-76.
- 16) Rickert VI, Wiemann CM.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 Pediatr Adol Gyn* 1998;11:167-175.
- 17) Ingemann-Hansen O, Brink O. City centre violence. *J Clin Forensic Med* 2004;11:303-307.
- 18) 이영희. 욕망의 사회사, '러브호텔'. *사회와 역사* 2012;96:183-224.
- 19) Muehlenhard CL. Misinterpreted dating behaviors and the risk of date ra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88;6:20-37.
- 20) Adams-Curtis LE, Forbes GB. College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coercion: a review of cultural, perpetrator, victim, and situational variables. *Trauma Violence Abuse* 2004;5:91-122.